

태풍 및 장마철 대비 돈사시설 점검

이 성 철
부경양돈농협 농가지원실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태풍 혹은 홍수의 피해를 꼭 겪고 지나간다. 태풍 및 홍수피해를 입으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같은 피해를 입고 물에 떠다니는 풍경을 목격한다. 태풍 혹은 장마피해를 겪을때면 항상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떠들면서 막상 피해를 겪고 조금만 지나면 모두 잊어버리고 피해예방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똑같은 피해를 다시 한번 입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한해에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태풍 및 홍수는 우리의 바램과 달리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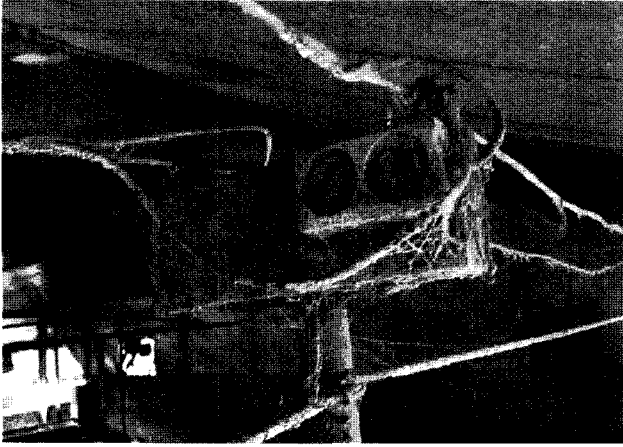
해에도 틀림없이 상륙할 것이므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그 피해는 감소 할 것이므로 본고는 태풍 및 장마철을 대비한 돈사의 시설점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배수로 점검

돈사주변의 배수로를 잘 정비하여 폭우시 우수의 돈사 유입이 없도록 하여준다. 특히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지역은 돈사주변 뿐만 아니라 양돈장 전체의 우수로를 미리 확보하여 주어야 한다. 돈사가 저지대에 위치 할 경우에는 돈사보다 더 낮은 우수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수로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시설은 돈사주변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흙 등으로 작은 언덕을 만들어 주어서 돈사로의 직접적인 우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돈사부지내에서 발생한 우수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양수시설을 확보하여 한다.

2. 전기시설 점검

홍수 및 태풍의 피해가 있을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같이 오는 피해가 전기에 의한 피해이다. 홍수에 의한 침수시 전기누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전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태풍시에는 전선의 절단으로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환기 감소에 의한 질식사 혹은 호흡기 질병 등(무창돈사) 피해발생이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전에 누전차단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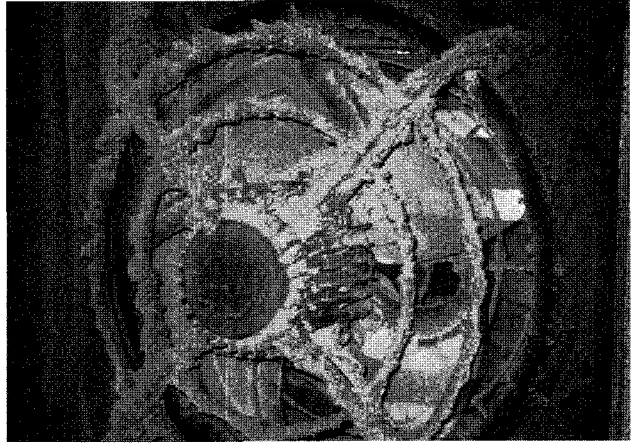


<그림 1> 전기배선 불량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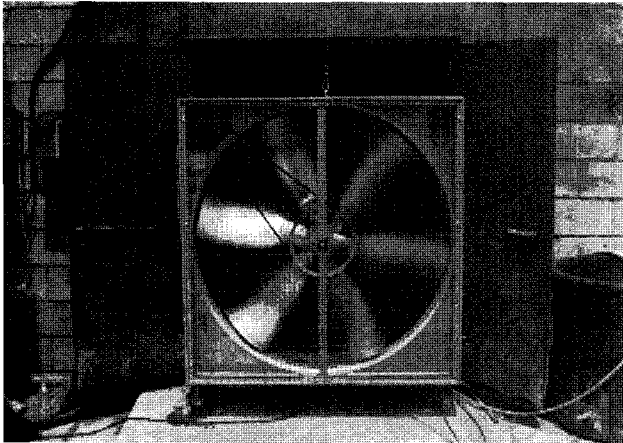
을 점검하여 고장난 누전차단시설을 사전에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전선을 점검하여(특히 연결부위) 전선의 절단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 환기시설 점검

태풍 및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체감온도의 상승)되므로 고온에 열사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고온다습한



<그림 3> 배기Fan 청소불량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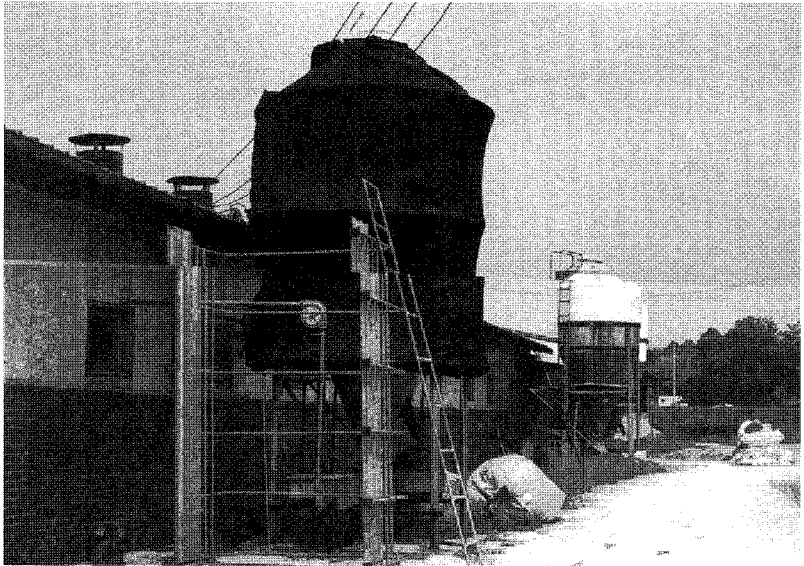
<그림 2> 입기Fan 설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돼지의 체감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하는데 장마철에 돼지의 체감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돼지에 바람을 느끼게 하여 주는 것이다.

돼지에게 바람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돈사내의 공기순환을 많이 시켜주어야 하므로 자연에 의한 방법과 더불어 보조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은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주는 것이다.

여름철에 환기시설이 충분히 작동하는

가장효과적인 방법이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환기Fan 등을 청소하여 주고(환기Fan에 이물질등이 끼어 청소 불량시 환기Fan 용량을 30%까지 떨어뜨림), 공기순환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없애준다. 중천장이 없는 시설은 천정에서 중천장위치까지 공기순환 차단시설(비닐 혹은 원치커텐지를 이용)을 설치하여 주어 돈사내의 공기순환을 좋게 유도할 수 있다.



<그림 4> 사료빈 차광막 설치

4. 돈사지붕 점검

돈사지붕이 허술하면 지붕이 누수 됨으로써 외부의 비가 직접 돈사내로 들어오는 피해와, 태풍 등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는 돈사의 지붕이 날아가 돼지를 외부의 비에 노출시키는 피해가 예상된다.

돈사지붕의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비가 돼지에게 직접 노출됨으로서 설사 등의 직접적 피해, 중천장이 설치된 돈사의 경우에는 중천장내에 물기가 많아 전기 등의 오작동에 의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돈사지붕을 점검하여 누수된 부분은 방수처리 혹은 지붕의 교체작업을 하여주고, 지붕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여 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지붕위로 한번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5. 사료빈의 누수 점검

육성돈을 비롯한 성돈이 갑자기 여름철에 비가 오고나면 갑자기 살모넬라 혹은 대장균성 설사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다면 사료급이 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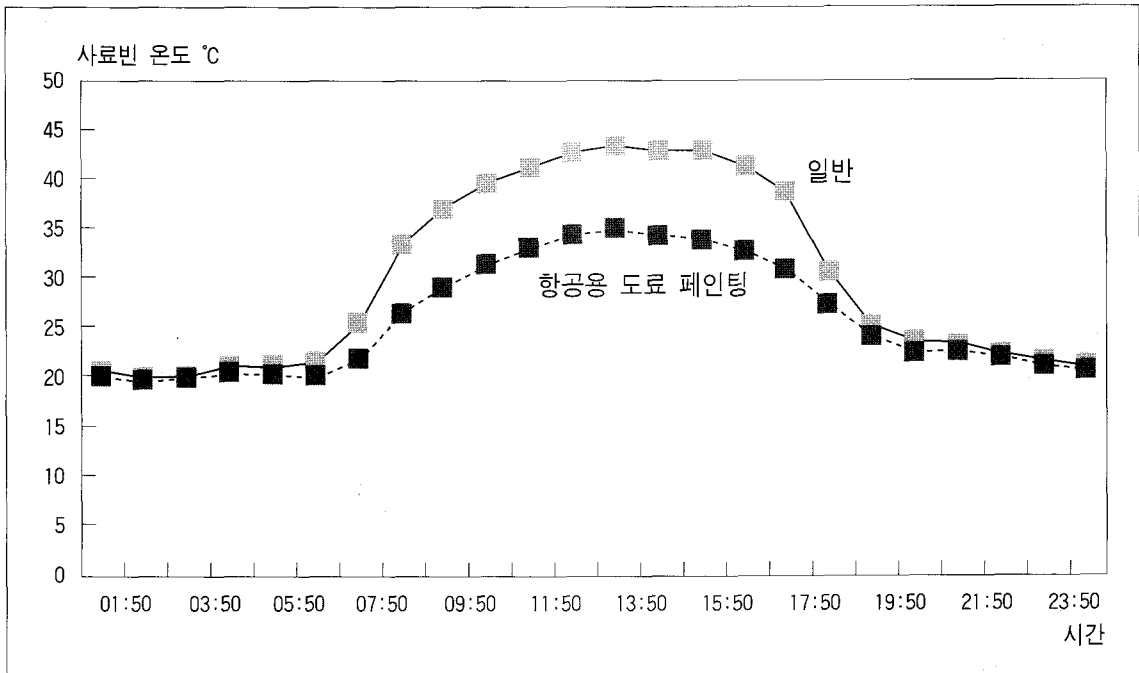
여름철의 설사피해의 대부분은 오염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이다. 여름철 설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사료를 공급하여 주는 시설의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한다. 신선한 사료공급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해 주어야 할 것은 사료빈의 오염을 방지하여 주는 것이다. 사료빈의 오염은 대부분 사료빈의 누수 등으로 인한 사료빈내에 부패에 의하여 살모넬라 혹은 대장균의 증식과 곰팡이의 증식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다. 지금 바로 사료빈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여 보자.(사료빈위에 차광막 등 방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더 신선한 사료를 공급하여 양돈생산성을 향상 시킬수 있음)

6. 돈사내 지하수 유입방지

장마철 및 태풍시에는 많은 비를 몰고와서 대지에 많은 양을 비를 뿌린다. 대지에 많은 양의 수분이 내리게 되면 지하수위가 높아져

〈그래프〉 항공용 도료 페인팅이 사료빈 내부 온도에 미치는 영향



• 부경양돈농협(2004년 8월 실험 실시)

서 지하수가 배수가 잘되어야 된다. 돈사주변의 물빠짐이 좋지 않을 경우 지하수의 부하압력이 낮은 쪽으로 지하수 물려들게 된다.

우리나라 돈사피트 대부분은 지하로 매설되어 있으며 방수처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하수의 유입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지하수는 돈사피트의 분뇨량을 증가시켜 분뇨처리의 부담과 분뇨의 돈방내 오염으로 기생충, 세균성질병균 등의 발생으로 돈군의 생산성적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돈방내 피트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돈사는 돈사주변을 돈방내 피트보다 낮게 파주거나, 지하수 유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므로써 장마철 및 태풍시의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수의 유입을 예방 할 수 있다.

7. 기타 점검사항

가. 분뇨처리장 유입관로 점검

나. 급수배관점검

다. 분뇨처리장 예비 저장조 확보

라. 분만사 건조제 준비 : 자돈의 설사예방, 분만처치용

마. 돈사주변 잡초 및 잔가지 제거

바. 돈사 및 돈사주변 청결관리

사. 지하수 오염방지

아. 보온시설 점검 : 일교차 피해 최소화

자. 수인성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 살모넬라, 대장균 등

차. 비상용 음수확보(물탱크)

카. 해충 구제작업

타. 장마철 전후 소독프로그램 보강 및 점검 **양돈**